



4면

'산책하며 책 보는 숲' 용머리고개에 조성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음 12월 6일) 제269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총회서 촉구 결의문 채택 “학교는 이윤추구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아냐... 교육이라는 특수성 고려해 판단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장은 안전보건 업무 관련 담당자로서 이미 처벌 대상인데 관련법 제정 시 학교장을 포함시키면 이는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최근 제76회 총회를 개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과, 노후화 된 학교 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첫째 자녀의 경우 유아휴직기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무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첫째 자녀도 유아휴직기간 전부 반영할 것과 함께 협의회 산하 (가칭)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제76회 총회를 개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서의 전직 제한 규정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서의 전직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해 허용돼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원에 교사 배치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발사업자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 증축비에 대

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에 소요된 경비 전부를 교육비전출회계로 전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정투자 심사 학교시설 초·중·고등학교’를 완화해 학생배치시설 승인 검토 시 주택사업 물량의 인정 범위를 분양공고 완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영상 새해 인사를 통해 “학습·돌봄, 학교방역의 안전망을 구축해 온 전국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드

린다”며, “교육부 또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교육역신 추진으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돼 있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분권화 된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격교육 개선, 학습격차 완화, 학습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 필요”

송하진 도지사, 시장·군수와 영상회의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와 AI적극 대응을 비롯해 대설, 한파 피해 사후대책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도내 코로나19는 현재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고생하고 협조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전북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02명이 발생했다”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다면 사태 진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의 안전과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전북의 코로나19는 대부분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유입 등 외부에서 발생했다”며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동이 많



“전북의 코로나19 대부분 타지역 유입 등 외부서 발생 지역 안전 위해 필요” 강조

아질 테니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방역대책을 참고해 이번에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특성상 전통시장에도 인파가 몰리는 만큼 방역 효과를 거두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연이어 발생하

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최근 한파, 대설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파 취약계층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것도 강조했다.

송 지사는 “AI 예방을 위해 축산 시설 소독담당자 운영과 소독 철저,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을 점검해 달라”며 “대설, 한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적설 취약 구조물도 적극적으로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끝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피해가 없도록 재난도우미를 활용하고 동파 방지, 전열기 화재 위험 예방 활동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지역 공공인프라 확충, 대도약 기틀 마련’

전북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발표

국가철도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7대 추진전략 · 30대 중점과제 추진키로

전북도 건설교통국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을 ‘지역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북 대도약 기틀 마련’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7대 추진전략 및 30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국도, 국가철도망 등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추진

전북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등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되는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5),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권 철도망(전주~김천, 전라선 고속철도 등) 반영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

류체계를 완성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신속 수립 및 기본·실시계획을 조기에 착수한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확장(삼례~김

제IC, 18km)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43km)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지역개발을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과 도내 주요 거점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지방도 소파보수와 덧씌우기 등 ‘지방도 관리이력’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수요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이용자가 급증(2019년 25만명→2020년 45만명)하고 있는 행복콜버스(13개 시·군 74대) 및 택시(993개 마을)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전주, 익산, 김제, 원주, 54억원)와 버스정보시스템(김제 3억원)을 구축한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확충(특별교통수단 11대, 임차택시 30대)하여 배차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10개 사업에 38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 이·치수 기능 강화·친수적인 하천환경 조성

국가하천 배수문 81개소에 85억원을 투자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방하천 58개소(45km)에 1,218억원을 투자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하천별 사업규모 및 재정투자계획 등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과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방정비 등 유지관리사업과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 2면에 계속 /유호상 기자

정성가득 마음을 담은 설맞이 선물기획전

근하신년 설맞이 기획전

1.8 ~ 2.5

설날 이벤트

- 명절상품권 운영기간중 5만원이상 구매 고객 15명 추첨
- 명절상품권 운영기간중 10만원이상 구매 고객 10명 추첨
- 명절상품권 운영기간중 20만원이상 구매 고객 5명 추첨
- 5만원이상 구매고객 100명 추첨 소정의 기념품 증정

*본 이벤트는 단품미인쇼핑을 회원가입하신 분들에게 한합니다.

단품미인쇼핑물 063-532-4345 / 063-535-4345

택배 마감 안내
기간: 1월 8일 ~ 2월 5일 오전 11시30분까지 주문 완료전
명절 택배물량 증가로 인하여 택배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소 특가세일

세일 30%이상

기간 1/19(화) 오전 9시 ~ 1/20(수) 오전 11시 30분까지